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선다

김 종 성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이 대담 시리즈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도서관계 안팎의 관심을 높이고 현단계 학교도서관 운동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려는 취지에서 시도된 것이다. 과거 학교도서관 운동을 주도하였거나 오랫동안 학교도서관 현장을 지켜온 인물들을 찾아 그들의 경험과 의식 속에 쌓여 있는 역사를 끌어내어 오늘을 비추어 보고 내일을 전망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이번 대담에서 만난 사람은 도서관에 기반을 둔 학교 교육의 실현을 위해 40여 년의 세월을 교육 현장에 바친 박태신 선생이다. 선생은 일찍이 1950년대부터 학교도서관과 인연을 맺어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운동을 선도하였으며, 교감(1966-1972), 부산시교육위원회 장학사(1973-1975), 교장(1976-1990) 등의 역할을 통하여 학교도서관이 있는 인간교육의 실천을 몸으로 보여왔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도서관과 교육 문제에 대한 깊은 열정과 왕성한 활동을 지속하는 젊은 도서관인이다.

대담 일시: 1998년 2월 13일 오후 2시-4시 30분

대담 장소: 부산교육대학 앞 [늘노래선교단] 사무실

김종성: 선생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의 산증인을 직접 만나 뵙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신: 반갑습니다.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이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이 때에 학교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후배를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내 경험이 김 선생에게 유익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성: 요즘도 선생님께서는 도서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세에 비해서 훨씬 젊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박태신: 뭐 활동이라 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그저 재미 삼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요. 부산 지역의 몇몇 공공도서관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가끔씩 현장 사서들 연수에 나가서 강연도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여러 가지 연수나 교육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지요. 하는 일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김종성: 예, 퇴직을 하신 후에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럼 학교도서관 운동이 시작되는 과정부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계기는 어떤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까?

박태신 : 어떤 봄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 계기가 있게 마련이지요. 그 당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선각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교사 중심으로, 판서 위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교육 방법을 탈피하는 선진 교육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선각자들이라 할 수 있지요. 그 중에 두 분 교장 선생님이 계신데, 박경원 선생님과 추월영 선생님입니다. 박경원 선생님은 마산여고, 진주여고, 진주고, 경남고, 부산여고 등에서 교장을 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시고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추월영 선생님은 경남고, 부산고, 부산여고 등에서 교장을 하시다 퇴직하시고 역시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새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도서관을 통한 '새교육'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학무국에 김성태라는 장학관이 있었는데 이 분이 '새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장학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한국 교육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경원 선생님은 1956년 마산여고에서 국내 처음으로 학교도서관 연구발표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서교사는 김세익 선생이었죠. 그 다음 박경원 선생님이 진주고등학교로 오셔서 학교도서관을 만드셨는데, 내가 그 때 학교도서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학교도서관의 씨를 뿌려 놓고 1957년에 부산으로 옮기셨습니다.

김종성 : 그럼 선생님께서 학교도서관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오로지 박경원 교장선생님 때문이군요.

박태신 : 사실은 그 전에도 내가 책 읽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도서관과 관련이 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경남 사천중학교

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에는 도서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장실에 가니까 조그만 책장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책이 한 이백 권 꽂혀 있었어요. 그 책을 보고 싶은데 교장실에 자꾸 들락날락 하기도 미안하고 해서 망설이고 있다가, 관리하는 담당교사에게 책을 좀 볼 수 없는가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책장 열쇠를 나한테 주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관리하게 된 거지요. 책을 보니 대부분 일본 책이었어요. 다행히 내가 일본글을 알아서 열심히 책을 보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 년 정도 열심히 하던 중에 진주중학교로 발령이 났어요. 진주중학교에 가니까 거기도 책도 없고 해서 교장 눈치 봐가면서 좀 해 볼려고 노력을 했어요. 거기서 한 이 년 하다가 진주고등학교로 발령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도서관을 담당하게 된 것은 진주고등학교에서 박경원 선생님의 영향이 컸지만, 내 개인적인 취향이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서관과 인연을 맺게 된 면도 있지요.

김종성 : 원래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도서관과 인연을 맺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아도 되겠군요. 이런 경험을 가진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도서관을 맡게 되신 것은 진주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군요.

박태신 : 내가 운이 좋았는지 진주고등학교에 도서관이 있더라구요. 교실 세 개쯤 되는 크기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요. 내가 역사를 가르쳤는데, 역사 교과서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나와요. 대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라고 그냥 외우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됩니까?

그렇게 외우게만 해서는 공부가 안 되는 거지요. 교사가 『동방견문록』을 읽어서 내용을 좀 알고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해 줘야 학생들도 흥미가 있는 건데, 교사가 아예 『동방견문록』이란 책을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도서관 서가를 가만 보니까 『동방견문록』이 있어요. 하, 이거 됐다. 내가 살 길이 여기 있구나 하며 무릎을 쳤죠. 그 때 『동방견문록』을 처음 봤어요. 밤새도록 그 책을 읽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니 학생들 눈이 번쩍 뜨이더라구요. 야, 저 선생 실력 있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나는 거지요. 나를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역사 시간에 들어가면, 삼국사기를 읽어보니까 김유신 장군 이야기가 나오더라, 참 재미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연히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그 책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도서관에 오지도 않던 아이들이 내 말을 듣고 도서관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독서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교사용이 될만한 책 사 오십 권을 뽑아 가지고, 지금 말로 하면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교무실 게시판에 붙여 놓고 많이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런 책이 우리 도서관에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걸 보고 '아 도서관에 제법 볼 만한 게 있구나'하고 빌리러 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서관과 학생, 도서관과 교사들이 상당히 친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힘이 전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했어요.

김종성 : 그렇게 시작하셨으니 처음에는 당연히 전문적인 기술이나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도서관을 운영하셨을 것 같습니다.

박태신 : 처음에는 아무 지식도 없이, 준비도 없이 시작한 거지요. 처음에 사서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명함에서 사서교사라고 찍어 다니고 했어요. 사람들이 사서교사가 뭐 하는 거냐고 자꾸 물어요. 그러면 나는 사서교사가 뭐 사서교사지 하고, 영어로 Teacher Librarian 이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렇게 아무 것도 모르고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삼 년 정도 열심히 하니 도서관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1958년에는 연구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책이 몇 권 있나 하면 천 팔백 권밖에 없었어요. 그 책을 두고 연구발표회를 한 거지요. 연구발표회를 하는데 주제를 '학습지도와 직결하는 학교도서관 운영'이라고 붙였어요. 제목은 일단 멋있게 붙였지요. 내용은 학교 수업과 도서관 자료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가령 국사 교과서다 하면 그 속에 대원군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 내용을 선생이 칠판에 줄줄 쓰고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하고 잘 외워 두라 하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고 도서관 자료와 직결시켜서 스스로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도 없이 연구발표회를 했습니다. 도서관에 책이라고 해야 천 팔백 권밖에 없으니 국사과목에 맞는 책이 많이 있습니까, 어디. 그야말로 무데뽀지요. 백과사전은 딱 한 권 있었어요. 학원사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내용이 중간에서 끊어진 것이더라구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외국 책을 보니까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이면 자기가 도서관 자료를 찾아 리포트 해서 발표하고 그렇게 하더라 말이죠.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선생님이 자기 아는 지식만 가지고 참고서 한 권

베껴서 준비해 가지고 시험에 낸다 하고 학생들을 협박만 하거든요. 그게 내 양심에 안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연구발표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960년에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에서 하는 사서교사 강습에 경남대표로 뽑혀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많이 배우고 좋은 책도 알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더글라스 여사가 쓴 『Teacher Librarian Handbook』이라는 책을 번역한 『사서교사 핸드북』인데, 이 책은 내가 죽을 때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책입니다. 미국에서 1960년에 나온 책인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김종성: 교육방법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도서관의 가능성을 확신하셨군요. 그런데 당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을 비롯하여 학교 현장의 여건이 지금과는 많이 다른 시기였는데요, 도서관 운영은 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습니까?

박태신: 그 때 박경원 교장선생님이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가셨는데, 서고로 그냥 놔두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교과 학습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 학생들 독서 지도에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문계 고교라 학생들이 머리는 좋은데 대학 입시 준비를 많이 하니까 독서를 권장하기도 어렵고 학생들도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방학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책을 읽도록 권장했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독서를 활용하려고 시도를 해 보니까 실제 적절한 책이 별로 없어요. 그 상황에서 교과별로, 단원별로 알맞는 좋은 책을 제시할 수가 없지요. 백과사전도 없고 기껏해야 옥편

정도였기 때문에 수업과 도서관 자료를 직결시키기가 어려웠지요. 그렇지만 있는 책이라도 구해서 수업 시간에 소개를 해 주면 학생들이 무척 흥미를 가졌습니다. 무미건조한 교과서 이외에도 도서관에 재미있는 책이 있구나 하고 눈을 뜨고, 그 방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독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죠. 그래서 나도 상당히 재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도서관이 폐가제였어요. 그런데 도서관을 좀 개방해야겠다 해서 경남고등학교에서는 완전 개가제를 시행했어요. 개가제를 하니 책이 분실된다든지, 많이 망가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애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직접 손으로 책을 접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진주고등학교 도서관은 반개가제였지요.

김종성: 자료와 시설 상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물론 상당히 열악했을 텐데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습니까?

박태신: 처음에는 자료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었습니다. 책이 없거든요, 도서비는 적고. 그래서 장서를 늘리기 위해서 기증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천 팔백 권에서 금년에 이백 권 늘려서 이천 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서 장서를 늘리는 겁니다. 장서를 늘리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요. 어떤 때는 우리 집에 있는 책도 갖다 놓고, 동창들 찾아가서 책을 얻기도 하고, 어디 가서 책을 빌리거나 잠깐 기증을 받거나 해서 장서 확충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장서 확충을 많이 했고, 장서가 한 삼천 권쯤 되고 나니 시설이 문제더구만요. 가령 서가라든지, 사전대라든지, 열람대라든지, 또 도서관에 있는 부속시설 문제가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관심을 가지면서 개선

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을 하니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서 위원들 선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용모도 단정한 아이를 뽑으려고 상당히 힘을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갖추어 가면서 여건을 조성한 겁니다.

김종성: 학교도서관에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을 이용자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오게 되니까요.

박태신: 그렇지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비교적 학구적이어서 사전을 많이 찾습니다. 독일어 선생님은 독일어사전을 찾고, 영어 선생님은 비교적 방대한 영어사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국어 선생님은 국문학사와 같이 무게 있는 주제의 책을 찾게 되는데, 그런 책을 구미에 맞게 잘 구비해서 제공하면 딱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선생님들은 전공자도 아닌 사람이 뭘 알겠나 하면서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서지도구나 참고자료를 활용해서 상당히 좋고 값있는 것을 목록으로 뽑아 가지고 한두 권 구입해서 도서관에 비치하고 관계되는 선생님에게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선생님이 나를 대단히 존경하게 됩니다. 나의 위치도 알아 주고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도움도 받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령 체육에 관한 책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도서구입을 할 때 체육 교사에게 가서 자문을 얻으면 그 분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둑책이나 등산책 같은 책도 사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취미가 있는 선생님들이 도서관에 접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이런 책은 어떻습니까 하고 소개도 하고, 구입에 대해 자꾸 의견을

물어보면 도서관에 대해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령 도서구입비가 필요할 때 교사들이 도서관에 책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 하면서 여론을 형성해 주면 크게 도움이 되고, 시설을 개선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주위에 있는 교사들이 내 편이 되어서 지지해 주면 일이 훨씬 쉽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일을 했고 별 충돌 없이 도서실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뭐 넉넉한 재원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돈도 좀 얻기도 하고, 아주 드문 일이었지만 혹시 남는 돈이 있으면 모조리 도서구입비로 돌린 적도 있습니다.

김종성: 역시 마산여고, 진주고등학교 등 서부 경남 지역에 학교도서관이 먼저 움트기 시작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교장 선생님들의 요인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박태신: 그렇지요. 그런 선각자들의 힘이 컸지요. 그리고 이 지역이 문화적으로 좀 앞선 곳입니다. 문화적으로 좀 부유하다 할까, 문화 도시이고 교육 도시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알이주고 교육 문화를 인정해주는 분위지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이고, 책을 읽는 사람이 선비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요.

김종성: 선각자적인 교장선생님들과 지역적인 분위기에 의해 경남지방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이 일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학교도서관 운동이 파급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령 도서관 연구발표회 같은 것 말입니다. 초창기에 도 단위의 연구발표회 같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박태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958년 11월에 내가 근무하는 진주고등학교에서 학교도서

관 연구발표회를 했습니다. 진주에는 개천예술제라는 큰 문화행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경남지방의 뜻 있는 사람들은 다 모입니다. 그 개천 예술제 시기를 이용하여 경남의 중고등학교 교장들을 모두 초대해서 학교도서관 연구발표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학교도서관은 필요하다, 학교도서관은 이렇게 만든다, 학교도서관은 수업에 이렇게 활용하고 생활지도는 이렇게 한다 해서 분위기에 불을 쬐 붙였지요. 그 때 경상남도 학무국에 있는 장학사들도 전원 나왔더라구요. 그리고 김성태 장학관이 총평을 하는데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심장이다’라는 말을 자꾸 외치더라구요. 참석한 교장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존 듀이(John Dewey)가 쓴 『민주주의와 교육(Democracy and Education)』 등을 인용하여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를 선구자라고 아주 칭찬을 하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놓고 모든 교과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도서관은 학교의 중심이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학무국 장학관이라고 하면 대단한 자입니다. 이 분이 학교도서관이 있어야 학교가 된다, 새교육은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도서관이 있어야 새교육이 되지 학교도서관 없이 새교육을 한다는 것은 공전(空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학교도서관을 만들어서 교사들의 수준도 높여야 하고 학생들 수준도 높여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이 아마 크게 영향을 발휘했을 겁니다.

김종성 : 서부경남 지역에서 태동한 학교도서관 운동이 이런 과정을 거쳐 경남과 부산 지역에 골고루 확산되는군요. 그럼 경남지방에서 일기 시작한 학교도서관 운동이 전국으로 파급되

는 것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까?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박태신 : 여러 가지 계기가 있겠습니다만, 전국 학교도서관대회가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1963년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부산여중에서 전국의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267명이 모여 처음으로 독립적인 학교도서관대회를 열었습니다. 문교부장관의 격려사도 있었는데, 여기서 학교도서관 운영의 제반 문제가 심도 있게 토의되었습니다. 일간신문 문화부 기자들도 이 대회를 기사화 해주고 대내외적으로 성과가 대단했습니다. 그 후 해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학교도서관대회를 열어 정보교환도 하고 현장견학도 하면서 사서교사 연수와 자긍심 제고에 큰 몫을 했습니다. 1964년 가을에는 대구상고에서, 1965년에는 전주고등학교에서, 1966년에는 제주 진성여고에서, 1967년에는 서울 건설회관에서, 1968년에는 인천 계물포고등학교에서, 1969년에는 춘천제일중학교에서, 1970년에는 호수돈여고에서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학교도서관 대회에서 발표된 주제를 보면 당시 문제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뜻을 모아 결의를 하고 문교부에 건의도 하고 활발했지요. 이런 대회가 매년 열릴 때는 그래도 사서교사들의 사기가 높았고 학교장의 이해와 문교부나 도교육위원회 등 행정당국의 협조도 컸다고 보아야겠습니다.

김종성 : 선생님께서는 진주고등학교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부산으로 오셔서 정년퇴직하실 때까지 부산에서만 근무하셨군요. 부산에서도 계속 학교도서관을 맡게 되셨죠.

박태신 : 진주고등학교에서 소문이 나서 그런지 부산 경남고등학교로 발령이 났어요. 그게 1962년 9월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도서관을 두

고 오려고 하니가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부산에 와서 가만 눈치를 보니까 교사들이 전부 영어, 수학 과외를 하더라고요.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나한테 도서관을 맡기더라고요. 어쩔 수 있습니까. 공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1962년 12월에 연구발표를 한 번 했어요. 그 때 내용은 흐름과 독서지도를 연계시키는 것이었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서 교실에서 독서지도를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지요. 그리고 제목을 '흐름에 있어서 집단독서의 연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스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집단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주위에서 그 안 좋은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단 하면 소련에서 쓰는 말이다 이거지요. 그래도 개의치 않고 그냥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나니까 반응이 좀 달라졌습니다.

김종성: 경남 지방에서 선각자들에 의해 시작된 학교도서관 운동이 1960년대에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경남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경남 교육위원회의 이윤근 교육감이 학교도서관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도서관 운동을 지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태신: 학무국이 교육위원회로 바뀌고 경상남도 초대 교육감이 이윤근 교육감입니다. 그 때 김두홍 선생이 도서관 담당 장학사로 있었어요. 이윤근 교육감이 도서관에 관심이 많아서 그 밑에 있던 김두홍 장학사가 기안을 해 가면 무조건 도장을 찍어 주고 더 추가해서 격려하고 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어떤 방법으로도든 재원을 조달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리 이삭줍기, 가을에 벼이삭

줍기 해서 돈을 마련하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 까리 압니까? 피마자 말이지요. 그것을 주워 팔아서 도서비 마련하고 폐품 수집도 해서 도서를 구입했어요. 아주 맹렬하게 했습니다. 이 분이 경남 시골 방방곡곡에 도서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때 경남이 아주 활발했지요. 이윤근 교육감이 8년간 경상남도 교육감으로 있다가 1969년에 부산시 교육감으로 옮겨졌어요. 그 때 나는 부산 서여중 교감으로 있었어요. 이윤근 교육감은 부산에 와서도 도서관을 많이 키웠죠. 물론 경남식으로는 안 됐어요. 도회지니까. 그래서 입학 기념 도서수집 같은 것을 했어요. 중학교 입학할 때 도서를 기증 받았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말이 좀 있기도 했는데, 기념으로 한 권씩 내라 해서 책이 많이 들어 왔어요. 일년에 한 사, 오 백 권씩 들어 왔지요. 물론 그 중에는 못 쓰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운영 지침'이란 것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시달렸어요. 학교도서관에서는 겸임이라도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 분류는 이렇게 하고 운영은 이렇게 한다 하고 간단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을 했어요. 각 학교 교감들도 모아 가지고 반드시 도서관은 해야 된다고 지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서교사들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지요. 교장들이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도서관을 해야 되겠다, 교감들도 도서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는데 하니가 담당자가 으쓱하게 되는 거지요. 그 때 우리가 '학교도서관 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부산시 교육위원회 안에 부산시 교육연구소가 있었어요. 지금은 부산시 교육연구원인데, 거기 원장이 있고 연구사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영역으로 학교도서관 연구 분야가 있어서 이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내가 회장을 맡았어요. 도서관협회와 별도로 부

산시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부산시 중고등학교 사서교사들의 모임을 만든 거지요. 내가 회장을 오래 했는데, 당시 부산시내의 고등학교 도서관 담당자가 육, 칠십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이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만났습니다. 학교 도서관을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한 번 만나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도서관연구회 회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계속 간행을 했습니다. 그 모임이 꽤 재미있었어요. 친목도 되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해결도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각 학교의 도서관위원들간의 교류도 시키고 했습니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에 모여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친목을 도모하기도 했어요. 자연스럽게 모여서 도서관 운영의 애로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 당시 멤버 중에 테레사여고 사서교사였던 류탁일 선생 같은 분이 있었는데, 아주 열심히 했고 교장이 무척 신임을 했어요. 도서관을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으면 우리가 좀 협조해 주고, 교장이 지원을 잘 해서 그 학교 도서관이 잘 되었어요. 경남에서는 마산 성지여고가 잘 되었어요. 그 학교 교장이 테레사여고에서 옮겨간 윤 수녀란 사람인데 그 학교도서관이 또 잘 되더라구요. 김두홍 선생이 나만 만나면 성지여고를 자랑해요. 우리 경남에서는 성지여고가 최고라고.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모델학교로 만든 거지요. 우리 부산에서는 경남고등학교가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연구발표회를 세 번이나 했어요. 1962년에 부산에 오자마자 한 번 하고, 1963년과 1964년에 한 번씩 더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시범 학교인 셈이죠. 중학교도 한 번 해야겠다 해서 경남 중학교에서 연구발표회를 하고, 경남고등학교만 할 수 있나 부산고등학교도 하자 해서 했어요.

부산고등학교는 당시 이규범 선생이 사서교사로 있었지요. 다른데도 하자 해서, 이병수 선생이 사서교사로 있었던 부산상고도 한 번 했어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학교도서관 연구회’가 순전히 임의 단체지만 교육연구원에 연락만 하면 공문을 내 주거든요. 공문을 내면 선생님들이 모입니다. 모이면, 오늘은 신설학교로 가자, 신설 학교에 도서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서가도 있어야 되고 비품도 사야 된다, 어디서 사야 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때 어떤 분은 사서교사를 하다가 그만 두고 도서관 용품 공장을 개업한 분도 있어요.

김종성: 1960년대 학교도서관 운동을 이야기 할 때는 언제나 김두홍, 이규범, 조재후 세 사람과 선생님을 거론합니다. 그 선생님들과의 만남은 언제 어떤 계기로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학교도서관 운동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태신: 김두홍 선생과의 인연은 서울 중앙교육연구소에서 처음 만난 것이 시작입니다. 1958년에 내가 진주고등학교에 있을 때인데, 신문에 중앙에서 사서교사 연수가 있다고 광고가 났습니다. 그 때는 내가 도서관을 맡고 있었지만 사서교사란 것에 대해 전혀 몰랐을 때이지요. 그 광고를 보고 교장한테 한 번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일주일간 무료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 때 서울에 올라가서 김두홍 선생을 만나게 되었지요. 같은 지방에서 올라 온 인연으로 같은 집에서 하숙을 했어요. 그 연수의 강사가 누구냐 하면 도서관협회 사무국장 엄대섭 선생이었어요. 그 분 강의를 듣고 나는 흥분을 했어요. 자기가

일본에서 자랐는데 한국에 와보니 도서관이 없다, 황무지다, 도서관 없이는 교육이 안 된다 그래요. 도서관협회도 약한데 도서관법도 없다, 도서관법을 만들자 그래요. 그 강의에 내가 그만 훌쩍 반했어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의 명재휘 선생이 강의를 하는데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을 강의해요. 하, 그 참. 어떻게 저런 좋은 말을 했을까 하고 생각을 했지요. 내가 도서관을 맡고 있는데 내 아픈 곳을 콕콕 찌르더라구요. 책은 이용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용자의 시간을 아껴라, 뭐 이런 거죠. 야, 내가 도서관 한 번 멋지게 해야 되겠다. 과연 참, 석학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이 다 맞거든요. 그 다섯 가지 법칙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분류는 백린 선생이 강의를 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었는데 다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연수를 일주일 마치고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더라구요. 당시 김두홍 선생은 경남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 내가 1958년에 진주고등학교에서 연구발표회를 하니 부산에서 김두홍, 이규범, 조재후 등 도서관쟁이들은 다 왔습니다. 내가 테리고 다니면서 진주의 명소인 축석루 구경도 시켜주고 했죠. 일주일간 연수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내가 자신 있게 발표를 했어요. 그 이전에는 이론도 없었지요. 당시 우리 진주고등학교 분류도 일본십진분류법(NDC)을 좀 수정해서 사용하던 때였어요. KDC도 없을 때고, DDC는 너무 복잡해서 어려웠으니까요. 지금도 우리 집에 있는 자료를 보면 '교과 학습 지도와 직결하는 도서관 자료'라고 해서 우습죠. 도서관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혼이 났죠. 차라리 우리 집에 있는 책이 더 많거든요. 그 때 기쁨이라 할까,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흥미감, 성취감, 성공감 등

이 내 인생에서 큰 힘이 되었어요. 그 때 만약 내가 그런 교육을 안 받고 있었으면 발전이 있었겠어요? 그런 체험을 가지고 도전했거든요. 이거 좋은거다. 이거 한 번 해보자. 그러니까 나도 기분이 좋고 나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좋다고 동조해서 같이 하고 그랬죠. 그래서 1950년대 후반기에 시작해서 1960년대에 부산에 와서 한 10년 잘 꽃 피웠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일반화 되었는데.

김종성: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은 1960년대에 가장 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로 넘어 가면서 학교도서관 운동이 눈에 띄게 침체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박태신: 글썄요,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교육 분야에서는 국적 있는 교육 같은 것이 제창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뭐라 할까, 도서관이 어느 정도 선에 도달하고 나니까 별 매력 없어 졌다고 할까요.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도서관 10년 정도 해봐야 별 앞길이 없더라는 거죠. 교감도 안되고, 도서관주임 제도가 없어지고. 그 전에는 도서관주임이 있었는데 1970년대에 와서는 도서관주임은 없어지고 문교부령에 의해 윤리주임, 새마을주임이 생겨서 그 주임들이 큰소리 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왜 도서관주임을 없애느냐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구주임이 도서관주임 겸하면 되지 않느냐 하더라구요. 주임을 한다는 것은 교감이 되는 길인데 도서관 맡아서는 교감이 안 되는 거지요. 길이 뻗은 것 아닙니까. 교감이 빨리 되려면 뭘 해야 되냐 하면 교무주임이거든요. 그 다음에 연구주임, 새마을주임 이런 정도이고 체육주임은 저 밑이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교육청, 교육연구

원 등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운동을 했어요. 이게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사서교사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청에서 안 하면 대학이라도 위탁해서 사서교사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어요. 그래서 당시 부산대학에 있던 류탁일 선생 도움을 받아서 부산대학에서 사서교사 양성을 하기도 했어요. 나도 강사로 좀 나가기도 했지요. 그런데 사서교사 양성을 해봐야 학교에서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윤리주임, 새마을주임, 교무주임 해야 교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래를 생각해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지요. 게다가 자기 밑에 조무원도 하나 안 주지, 감사 나오면 항상 도서관에 들러서 책이 있나 없나 둘러보고 책 분실되면 책임지라 그러지, 기분 나쁘거든요. 차라리 학생주임이나 교무주임 하던 큰소리 치고 말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의 관심이 도서관에서 멀어지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 나하고 같이 도서관주임 하던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도서관 집어 치우고 학생주임, 교무주임 하더라구요. 결국 도서관은 서무실에서 심부름 하는 아이들이 오후 시간에 앉아서 깔짝 깔짝 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 후 문교부가 교원 재교육 기능을 부산대학에서 이양 받아 교육청에 주었고, 교육청에서는 부산 교육공무원 연수원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달려갔지요, 연수원장이 우리 동료니까. 반드시 사서교사 연수를 해라, 그리고 일반 연수도 해라 그랬어요. 일반 연수를 하면 무슨 특이 있냐 하면 그 성적이 교감 승진할 때 평가 점수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체육주임, 교무주임 하던 사람 중에 점수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교감 되는 점수 받으려고 사서교사 연수를 받겠다고 해요. 사서교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연수를 받겠다는 거지요. 연수에 강사

로 나가서 이야기해보면 연수 받아서 사서교사 하겠다는 사람 없어요. 교감 되는데 점수 따려고 왔다 그러지요. 그리고 이왕이면 강사들은 점수를 잘 주거든요. 그 점수 때문에 사서교사 할 마음도 없으면서 교감 되려고 연수를 받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교감된 사람도 많습시다.

김종성: 그러니까 1970년대에 와서 사서교사 직은 매력이 없어지고……

박태신: 매력이 없어진 거지요. 대우도 나빠지고. 도서관주임 제도도 서서히 사라지고요.

김종성: 그건 1960년대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상당한 정도로 확산되었지만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안되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군요.

박태신: 그렇죠. 교무주임, 학생주임, 새마을주임, 윤리주임은 상당히 알아준다 이거지요. 그리고 체육주임도 그런대로 좋았어요. 체력은 국력이다 해 가지고 체육 교육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도서관 교육은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이고 주임도 없지요. 연구주임이 도서관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도서관을 오래 담당할 사람도 아니고 간혹 연구 발표회 한 번씩 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도서관은 누가 하나 하면, 연구부 안에 도서관계라고 해서 갖 들어온 여선생들 담당시키는 겁니다. 도서관 몰라서 못하겠다 하면 교과서만 주문해서 배부하면 되고 도서관에 가서 청소나 하면 되는거요 하면서, 학생 도서위원 몇 명 뽑아줘서 적당히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책이나 보려고 가면 ‘오늘은 휴관합니다’라고 써 붙이고 문 잠궈 두는 겁니다. 그리고 뜻 있는 선생들이 도서관 좀 활성화합시다 하면 ‘니 잘 해 봐라’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지요. 교사들 인사기록카드에 보면 사서교사 강습 받은 것이나 자격증 사항이 나오거든

요. 그래서 도서관 담당해라 하면 절대로 안 하려고 해요. 차라리 청소 담당을 하면 됐지 도서관 담당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 안 되는 거지요. 해봐야 대우는 안 해주면서 책임은 많거든요. 감사 나오면 도서관부 가져오라 해서 이 책 찾아오라 그래요. 그리고는 책이 없으면 당신 책임 저라 그래요. 또 화재 날까 겁나지,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안 합니다.

김종성: 과거 학교도서관 운동을 하면서 사서교사 배치 문제나 학교도서관 관련 법규 문제 등 나름대로 제도적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거의 소득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것이 결국 학교도서관 운동의 성과를 지속시키지 못한 배경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서관대회 등을 통해서 사서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도서관 협회를 통해 문교부에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과 관계관에게 중등학교만이라도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된다고 인사시기에 여러 번 건의를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거지요.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곤란하니 큰 학교는 자체적으로 육성회 예산 등을 활용해서 채용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끊임없이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진게 거의 없습니다.

김종성: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법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해 오래 전부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기준이 명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교육 당국의 의지와 실천 능력이 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신: 도서관법이 제정, 공포되기를 우리 도서관협회가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도서관대회 때마다 도서관법 제정을 건의했죠. 그리고 몇 해 후에 통과가 되었어요. 통과가 되었지만 법만 가지고는 그 시행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시행령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발표를 보고 무척 흥분했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죠. 그대로 실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건 나뿐만 아니고 도서관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발표가 되었는데 사서교사 티오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사서교사 T/O가 얼마 후에 내려왔는데, 내가 알기로 부산에 세 명 정도 내려왔습니다. 경남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부산여고, 부산고등학교에 한 명씩 사서교사 T/O가 내려오고 그 나머지는 T/O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법 조문이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더군요. 지금까지도 그 시행령만 있지 실제 T/O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주임 또는 도서관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사무원도 두기도 하는 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종성: 선생님께서는 1976년에 교장이 되어서 15년간 학교의 경영자로 활동하셨습니다. 물론 교장직에 계시면서 학교도서관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때 느끼신 어려움이라든지 한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태신: 먼저 내가 소신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 주는 것이 힘

이 드는 거지요. 저 사람 자기 혼자 흥이 나서 저것만 하고 다른 건 안 한다, 저 사람 좀 미친 것 아닌가 할 수도 있고. 또 좀 유치한 것은 도서관 하면 뭐가 좀 생기는 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지요. 도서관을 하려고 하다보면 그런 오해를 많이 받게 되지요. 그런데 역시 중요한 문제는 예산 문제입니다. 서무 계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서무에 돈이 50만원 있다 하면 내가 우선적으로 도서관에 좀 투자하자 하면 전기도 고쳐야 되고, 수도도 고쳐야 되고, 담장도 쌓아야 하고 쓸 데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 때 교장으로서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전임 사서 배치가 참 어렵더라고요. 전임 사서 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미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잘하라고 격려해 주면 되니까 쉽지요. 그런데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새로 사서를 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서 한 명 일년 월급을 육, 칠 백 만 원 잡아야 되거든요. 사서를 채용하려면 교육부 예산에서 안 나오는 그 돈을 내가 어디서든 만들어 내야 되는 거지요. 다른 예산을 절약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서무 쪽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신설학교에 가면 더 어렵죠. 신설학교에서 도서관을 만든 경험이 있는데, 학부형한테 도움을 얻고 애들한테 도서기증도 받고 했죠. 그렇게 관심만 가지고 하면 또 됩니다. 하려는 의욕만 있으면 금방은 안 되더라도 한 2년 하면 됩니다. 그런 말 있지요. 학교도서관은 3년 하면 일어나고 3년 마음놓으면 다 망한다고. 도서관은 관심 안 가지면 금방 없어집니다. 한 3년만 하면 웬만한 학교도서관 하나 만듭니다.

문제는 전임 사서입니다. 전임 직원이 한 사람 있으면 금방 됩니다. 그리고 열린 교육이라고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습 방법을 많이 권장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구해야 되지 거기 안 가면 어디 갑니까. 예산도 좀 주고 전임 사서도 앉히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성: 학교도서관은 다른 관중과 달리 교장의 관심과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서교사로 활동하셨을 때 교장들의 지원이 좋았는지, 선생님께서 교장이 되셨을 때는 사서교사들을 많이 도와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을 부흥시키려면 학교 경영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박태신: 옳은 말입니다. 내가 도서관을 맡고 있을 때 대단히 열의가 있는 교장을 만나기도 했고 그냥 보통 교장을 만나기도 했는데, 열의가 있는 교장은 사서교사가 일하기가 아주 수월하지요. 한 오 만원 필요하다 하면 십 만원도 주고, 도서관 열람대 하나 더 확충해야 되겠다고 하면 있는 열람대도 수리 해주고 하는 식이지요. 그런 교장도 있고 도서관 담당 선생이 이야기하면 이야기한 만큼밖에 안 해 주는 교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고 안되겠다고 하는 교장을 모셔 보지는 않았습시다. 그런 면에서 도서관 담당자로서는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장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담당 교사들이 열의가 없는 것 같았어요. 돈을 좀 달라고 하면 좀 주겠는데, 내가 자꾸 자진해서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도서관 담당 선생님들이 자꾸 조르면 되는데 별로 요구를 안 하니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나는 예산대로 쓰고 부족하면 담당자가 요구하는 대로 지원해 주려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장의 인식을 강화하

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선 교감, 교장 자격 연수가 있어요. 그 연수 과정에 도서관 및 독서지도 시간을 넣어야 합니다. 열린교육과 학교도서관, 독서지도와 인성교육 등 도서관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임교사 일반 연수에도 도서관, 독서지도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교장, 교감 회의에도 감독기관에서 도서관과 독서지도 진흥을 강조해야 되고 학교평가에서 학교도서관 운영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 당국에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시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실 학교도서관이 잘 운영되려면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과 학부모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장, 교감, 주임 교사들, 서무직원, 학부형, 학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서교사가 좀 열을 내면 교장이 도서관에 협조를 해 주고 학생들도 도서관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대해 별로 이해가 없었지만 열의를 가진 사서교사가 활동을 열심히 하면 상당히 호응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지요.

김종성: 우리 사회의 컴퓨터 테크놀로지와 뉴미디어의 기술 발전에 따라 1990년대 우리 교육계에 불어닥친 한가지 강력한 조류가 교육 정보화이고 이 교육 정보화의 일환으로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현실적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든지 전통매체 중심의 정보자료 활용 교육의 가치와 효용을 부정하는 경향 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 일부에서는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태신: 전통매체 중심의 정보자료라면 일반

도서, 참고도서, 그리고 연속간행물, 시각자료, 음향자료, 영상자료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이겠지요. 컴퓨터자료가 속속 들어오는 마당에 이것들도 도서관 자료로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통매체 중심의 참고도서, 일반도서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마치 정보사회로 가는 길인 것처럼 선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학교도서관에서 종이로 만든 책을 가르치고 이용하는데 더욱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참고도서를 비치하여 교과학습과 연결하고 책읽기를 통한 정서 함양에 힘을 기울여야지요.

김종성: 1990년대 들어 특히 교육 개혁이라는 과제는 전 국가적 이슈가 되어 버린 듯합니다. 열린 교육을 제창하고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는 등 교육 개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학교도서관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태신: 이런 상황에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서관 자료 없이 다양한 독서 교육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자료를 선정하여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할 몫이고 효율적인 운영도 훈련된 사람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양호교사를 배치하듯이 중고교에는 사서교사 한 명을 꼭 배정하여 도서관 중심의 학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실 중심으로 학급문고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지요. 지금 대체로 보면 집단 지도로 학급 중심 또는 특활독서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으

나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대출하고 지도하면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견 분명한 원리입니다.

김종성: 소수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나라에 학교도서관 현장을 지키는 사서교사들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사서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며 어떤 의식을 소유해야 하는지 평소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지론이 있으시면 후배들을 위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신: 1960년대 초의 사서교사는 상당히 권위가 있었어요.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대개 그 때는 사서교사가 법에는 없으니까 연구주임이나 도서관주임이라 그랬어요. 연구주임, 도서관주임 이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 가장 학구적인 선생님이고 또 실력도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열의도 있고, 신망도 있고, 도서관 담당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보다 실력 있는 분이고, 착실한 분이다 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먼저 사서는 사명감이 투철해야 되고, 전교생의 스승이다라는 생각과 전교직원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 연구에 힘을 써서 도서관에 있는 각종 자료에 정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여기에다 한자 실력과 어학 실력이 좀 제고되어 있으면 금상첨화(錦上添花)겠지요. 사서교사가 봉사대상인 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학교의 전반적인 계획이나 행사 같은 것을 모르고 있으면 원활한 운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서교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김종성: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교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전개하신 이면에는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 정상화의 신념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태신: 그렇습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심장이다라는 말을 저는 자주 씁니다. 대학에서는 도서관이 대학의 심장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심장이라고 하면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학교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서의 질과 양 그리고 그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센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진국가가 다 그러했고 우리 나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심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서관을 제일 깨끗하게 만들고 도서관을 좀 내실 있게 꾸미면 그 만큼 학교 교육의 질은 향상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의 질적 고급화는 도서관의 질적 충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도서관이 잘되면 교육은 바로 정상화 될 수 있고 교육은 질적으로 고급화될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저는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내용을 좀 더 알뜰하게 정선한 좋은 책을 넣고 도서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저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아이들도 조금씩 변하게 되고 눈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고 선생님들도 자기네를 지도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종성: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과거 학교도서관 운동이 부흥하던 시기와는 교육 현장 안팎의 환경이 크게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을 전개할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전략이나 전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신 : 학교도서관 정책은 교육부의 정책 수립자,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이하 수뇌부의 생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장의 교육관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지요. 따라서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을 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언론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디지털, 멀티미디어만 소개하지 말고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에 대해서도 자주 보도하면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도서관 주간이나 독서의 달은 물론이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책에 관한 보도가 있으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김종성 :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젊음을 유지하시는 비결을 어렵듯하게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간직하고 계신 열정과 신념이 후배들에게 큰 자극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힘이 이 나라의 학교도서관을 살리는 원동력으로 모이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늘 지금 모습대로 젊게 사시면서 후배들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태신 : 고맙습니다. 나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서관의 전통적인 분류 이론과 실제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현대의 동향을 함께 고찰한

정보자료의 분류

신간

최달현·이창수 공저

〈주요목차〉

도서관자료의 조직/분류이론/자료분류의 역사/
주요분류법 (KDC·DDC·LCC·UDC) /
분류작업·분류정책과 도서관행정/주제명표목과
주제명표목표 (미국의회도서관·시어즈·리제철·
국립중앙도서관) /정보기술과 자료분류/자동분류

354쪽/신국판

정가 12,000원

회원보급가 9,600원

ISBN 89-7678-037-X

구입문의·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전화 02-535-4868 팩스 02-535-5616